

願 所 以 安 問

會 長 尹 日 重

本學會가 創立되던 今年
七月이면 滿九週年이 됩니다.
其後 以來 活發치는 못하였을
말고 今日까지 無事리 維持
繼週되셨음은 오로지 會員各
位의 德次와라고 深甚한 敬
意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.

夫間 小生은 近一年 동안
外地旅行으로 會務를 보지 못하
고 諸位에도 積阻하여 더욱
罪愆하기 짝이 없읍니다.
會員여러분은 널리 容恕하여
주심을 切望하나이다.

지금은 建國大業의 初創時로
傷後復田의 受難期라 政府機關
이나 社會團體나 家庭이나 個
人이나 모두가 混雜이요 萬事가 困
難한것은 오히려當然한것이기에
怨望하고 咀呪하고 中傷하고 謀
略한들 무슨 效果가 있으리오.
우리는 다만 서로 協助하는 同
時에 最小를 바라보고 하나라도

實踐에 努力함이 賢明하고 効
率的이라 思忖하는 바입니다.

우리學會도 累次 말씀한
바와같이 任員 幾個人의 誤會
가아니고 會員諸位의 學會을시
다. 學會로서는 緊急한 課題도
山積되어 있고 多少의 拒負도 있
어 任員 몇사람이 거의 每週一
回式은 會合하여 努力하고 있으
나 萬事가 如意치 못함과 躊躇
이 있고 있어 오니 會員諸位에서도
이苦衷을 諒察하시며 格別하신
指導協助를 하여주시고 또 勤靜
과 玉稿도 많이 보내주심을 願하
나이다. 今般 小生의 所謂 旅
行所感도 多少 있었으나 歸國後
雜務에 沓沒하리 아주 整理치
못하였아오니 이것은 次호로
드리고 爲先 謝遇의 말씀과 所
願의 一端을 알외오니 諒解하
여주시고 文意의 拙劣을 容恕하
여 주시옵소서.....